도,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 운영

청명·한식 전후 입산자 늘며 산불 위험 증가 예상… 10일까지 특별대책 중점 추진·산불예방 총력 대응

전북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청명·한식(4월 5~6일) 전후 10일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중점 추진기간(4월 1~10일)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명·한식일에는 묘지 이장이나 사초 등 산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크다. 또 봄철 입산자가 늘면서 유명산과 사찰변, 상습무속행위지 등에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중점 추진대책을 △사전대비, △예방활동, △현장대응, △국민안전 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우선, 사전대비 분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감시인력을 확대한다.

예방활동 분야로는 도내 주요 전광판 및 민방위경보시설, 사회 관계망,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시원 등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통해 감시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현장대응 분야인 산불대응에 있어 도에서 운영하는 진화헬기 3대와 산림청 진화헬기 8대의 공조로 초기 진화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예방진화대 이외에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 분야는 GPS 기반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행동요령 안내, 주민대피장소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재난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대형산불로 확대될 경우 도청 직원들에게 총동원령이 발령되며, 불법 소각방지를 위한 산림·농업·환경부서의 합동단속도 강화된다.

도내 군부대에는 기상여건을 고려한 사격훈련이 조정되고, 각 소방서는 주택 화재에 따른 산불비화 전 화재상황을 산림당국과 공조한다. 또한, 한전에서는 전력설비 고장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산불상황 시에는 지역 산림조합별 작업단 등을 진화자원으로 활용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는 340여건, 전북지역에서는 31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고,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마다 청명·한식 기간 전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지식살롱' 3회차 개최

한국최대 PR·홍보 전문그룹 KPR 김강진 이사 초청

'고객과 브랜드를 잇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 설계' 주제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는 4월 5일 오후 5시에 전북지식살롱 제3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월 KPR 김강진 이사의 강연은 빠르게 변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캠페인 사례를 들어 볼 수 있는 '고객과 브랜드를 잇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 설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KPR은 2022년 국내 편의점 업계 1위 브랜드인 CU가 탄생 10주년을 맞아, 소비의 주축이자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팬덤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SNS 숏폼영상 16부작을 통해, MZ세대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제페토 등 메타버스 세상에 개설한 가상의 CU 점포에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유쾌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했다.

이 캠페인으로 광고대행사가 아닌 PR 기업 최초로 '2022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소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아울러, KPR 김강진 이사는 코로나 시대의 한국관광공사 'Feel the rhythm of Korea' 광고 캠페인 일환으로 유튜브(@imagineyourkorea) 콘텐츠를 2년 동안 담당했다. 어반스케치작가, 러닝크루, 힙합뮤지션, 미니어처 전문가는 물론, 안테나뮤직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별 음원 제작 등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콘텐츠의 '르네상스 시대'(유튜브 댓글)에 일익을 담당한 바가 있다.

특히, 이번 강연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경험 설계 방안과 MZ세대의 감성을 사로잡는 콘텐츠 노하우 및 꿀팁으로 전북지역의 각 기업은 물론 시군 공공부문과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PR 및 홍보의 성공 원칙 비밀을 전수해 줄 예정이다.

전북지식살롱은 지난 3월초 시작되어 1회차는 '범 내려온다' 광고캠페인 기획자인 서경종 본부장이 '지역의 가능성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제로, 2회차는 세계 최대의 브랜드 컨설팅그룹인 인터브랜드(한국지사)의 정하진 CD(Creative Director)가 'Creativity can change the world'를 주제로 소통했다.

/김재훈 기자

박정규 도의원, 산림자원 산림경영 제도개선 건의

권익위에 임업인 고충 해결 위해 산림조합과 간담회 제안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지난달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산림자원 및 산림경영 제도개선 관련 임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진행을 맡았고 황상국 도 산림녹지과장,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열악한 임업인 근로환경 개선과 산림자원 보호, 산림경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토론했다.

박정규 의원은 "산림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토 보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 뒤 "현장 임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에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과 임도 등 산림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 단가가 물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에 못 미쳐 견실 시공과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위험한 벌목과 험준한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산림사업의 특성과 산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산림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 내용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 담당 공무원과 임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향상과 작업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속가능 상생발전 협약'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북-수원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 종료

위기단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강화 방역조치 유지 방침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일자로 종료하고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고 3월 8일 이후 추가적인 감염사례가 없었으며, 도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인 점이 고려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총 8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71개 농가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 도내 발생률은 11.3%을 보였다.

이는 지난 동절기(2021년 10월~2022년 4월) 전북지역 발생률 14.7%(전국 47개 농가 발생 중 도내 7개 농가 발생)에 비해 3.4%가 감소한 수치다.

전북도는 이 같은 결과를 작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 △오리 사육제한 확대(46호·97호), △거점소독시설 확대(14개소·33개소), △종오리농가 1농가-1담당자 집중관리 등의 방역조치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노력이 맞물려 작용한 효과로 보고 있다.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철새가 북상한 이후에도 오리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가금농장 종사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상여부 확인시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 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고위험지역 소독 강화 조치와 가금농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가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과 소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

산지유통 관계자·농협·농업인·전문가 등 참석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정부 유통 정책 개편에 따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농협, 산지유통조직, 농업인, 전북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 정책의 방향을 지역 중심의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이끌어 왔으나 급변하는 유통 시장의 변화에 맞춰 대규모 집하·선별·유통을 할 수 있는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정책을 변환, 유통업체를 압도하는 시장교섭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물량 확보와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거점 스마트 APC를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유통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우선 시·군 조공법인 13개와 품목조직 3개 등 총 16개 조직이 정부의 매뉴얼(전문품목, 시설원예 취급액 70억원 이상)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장교섭력이 취약한 도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공동집하·선별·포장·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원예 허브 APC 건립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등 시장 교섭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스마트 유통 혁신으로 2026년 생산유통통합조직 매출 9,4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생산유통통합조직(舊, 통합마케팅조직) 매출액 5,400억원(2026년 9,400억원), 스마트 APC 1개소 구축(2026년 3개소),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매출 100억원(2026년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산지유통 및 온라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10년간 도내 농기계 화재 198건… 봄철에 가장 많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봄철에 농기계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화재는 198건으로 이 중 68건이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3~5월)에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이 31건, 과열·과부화 등 기계적 요인 15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1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양곡관리버 개정, 대통령 거부 초읽기

전북도내 농심 들끓는 중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내 농심이 들끓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엿새 후인 29일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벌어졌다"면서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를 피해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찢어발기더니 이제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주문만 외치고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농림부장관부터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은 뒤로 팽개쳐 놓고, 주야장천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여당과 작당해 양곡관리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5조 이상의 직불예산을 세우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기업 살리는데 80조, 부자세 3조 감면시킨다더니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식량안보를 사수하는데 1조가 아까워서 '쌀 산업 위기·농업파탄'을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한 노릇"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외치며 식량자급률을 올린다더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막장농정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사람들이 어찌 민심을 살피는 위정자라 할 수 있겠느냐"며 "현장 농심을 외면하지 말고, 농민 의견을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를 넘어가거나 수확기에 쌀 가격이 평년보다 5~8% 이상 내려가면 초과 생산한 만큼의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길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양성평등센터,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 기관 모집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사업을 실시한다며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성평등 인식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성희롱·성불평등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성불평등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구성원의 역할 등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참여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로 선착순 10곳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누리집(www.jwri.kr)에서 신청서 확인 및 작성 후, 이메일(jgc@jthink.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4일 전북대서 개최… 도내 지역인재 채용기회 확대 도모

전북도는 도내 지역인재채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4월 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3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9년 전주대학교 개최 이후 4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되며, 취업준비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하고, 대학생들의 합동채용설명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대학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북개발공사 등 2개 지역기관이 참여해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주요 프로그램으로 공기업 등 취업과정 필수시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시스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준비 전략 등을 안내한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의 기관소개, 인재상, 채용정보 설명과 관련 질의응답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기관별로 취업선배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해 취업 후기 및 합격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등을 전한다.

더불어 취업준비생이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공공기관 연계 실무교육 프로그램 오픈캠퍼스, 면접시 맞춤형 메이크업 및 복장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정보, 취업선배들과 성공경험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으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